

한효주 정은채? 마녀사냥에 우는 여배우들

4일 ‘그것이…’ 방송 후 루머 확산
무분별한 추측성 글에 이미지 타격
당사자들 “관련없다…법적 조치”

배우 한효주, 정은채, 김고은 등이 잇따라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일부 누리꾼의 추측으로부터 시작된 루머가 확대재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누리꾼들의 추측성 댓글과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한효주, 정은채, 김고은은 4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송 이후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일부 누리꾼으로부터 의혹의 시선을 받고 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해 11월 버닝썬에서 열린 한 화장품 브랜드 행사에 참석한 30대 여배우가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행동을 했다는 제보자의 말을 방송했다. 이후 일부 누리꾼들은 버닝썬에서 행사를 연 화장품 브랜드를 찾아내 한때 모델로 활동했던 한효주, 정은채 등의 이름을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과 댓글 등에서 거론했다. 순식간에 이들을 의심하는 글이 온라인상에 가득했다.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쏟아지기 시작한 셈이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한효주의 소속사



연기자 한효주, 정은채, 김고은, 고준희(왼쪽부터)가 클럽 버닝썬 사건과 관련한 루머에 휘말렸다.

스포츠동아DB

BH엔터테인먼트는 6일 “한효주는 해당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버닝썬에도 출입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정은채 측도 “지난해 4월 해당 브랜드와 계약이 종료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동적으로 “온라인상에서 허위 사실을 추측해 유포, 확대재생산할 경우 법적 조치하겠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드러냈다. 앞서 고준희도 3월23일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이후 일부 누리꾼으로부터 ‘승리의

일본 사업가 접대 자리에 참석한 뉴욕 여배우’로 지목돼 이들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연예계에서는 현재 경찰이 버닝썬 사건을 수사 중인 만큼 이른 시일 안에 사실이 규명되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경찰의 정확하고도 신속한 수사가 이 같은 상황을 찾아들게 할 해결책으로 보고 있다. 호기심에서 시작한 일부 누리꾼의 추측 자체가 스타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거짓으로 드러나더라도 의혹의 시선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여파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한편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날 방송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31)와 연관된 연예인 ‘마약 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나특형’의 반란…좌석판매율 어벤저스 넘었다

〈나의 특별한 형제〉

어벤저스4 독점·피카츄 품수 톱고
6일동안 80만 관객…입소문의 힘

배우 신하균과 이광수, 이솜이 ‘착한’ 가족영화의 힘을 제대로 증명하고 있다. 피를 나누지 않은 형제가 전하는 가족의 의미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연대를 따뜻한 이야기로 녹여내 관객과 소통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이 주연한 ‘나의 특별한 형제’(나특형, 제작 명필름)가 1일 개봉해 황금연휴 동안 차근차근 관객을 모아 6일까지 약 80만 명을 동원했다. 전체 스크린 대부분을 차지한 채 하루 100만 명 가까이 모은



영화 ‘나의 특별한 형제’

사진제공 | NEW

‘어벤저스:엔드게임’(어벤저스4)과 비교하면 적은 수치이지만, 상영관 확보가 ‘극한’에 다다른 최근 극장가 상황에서 눈에 띄는 성과다.

‘나특형’은 어린이날인 5일 785개 스크

린에서 2842회(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상영했다. 같은 날 ‘어벤저스4’의 1만 486회와 비교하면 5분의1 수준. 하지만 이날 좌석판매율(50.1%)로 ‘어벤저스4’(48.9%)를 앞지르는 ‘반란’을 일으켰다. 실제 티켓을 구입해 상영관 좌석을 채운 관객 비율이 더 높다는 의미이다. 동시에 관객의 긍정적인 반응과 입소문이 반영된 결과로도 풀이된다.

‘나특형’이 황금연휴 내내 처한 상황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어벤저스4’ 뿐 아니라 9일 개봉을 앞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명탐정 피카츄’가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라는 비판 속에 개봉에 앞서 4일~6일 전국 주요 상영관에서 먼저 상영하는

이해리 기자 goli1024@donga.com

마지막 앨범 내는 EXID…“해체 아닌 전환기”

솔지·LE·헤린만 재계약 체결
15일 새 음반 발표…유종의 미



EXID

않지만, 일본에서 지난해 데뷔한 만큼 올해까지는 활동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후 멤버들은 개인 활동 위주로 팬들과 만날 예정이다. 소속사와 재계약한 솔지와 LE는 멤버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보컬과 랩 실력을 겸비해 향후 솔로가수로 나선다. 헤린도 보컬 실력뿐 아니라 예능프로그램 등에서 호감이 높은 만큼 솔로가수에만 그치지 않고 다채로운 활동을 구상하고 있다.

하니와 정화는 개별 역량과 매력을 살려 자신들과 잘 맞는 기획사를 찾아 솔로나 연기 등으로 무대에 나설 계획이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강식당2’ 경주점 영업 첫날부터 바글바글

인터넷 추천 방식으로 변경
하루에 신청 5만~6만 몰려

tvN 예능프로그램 ‘강식당’ 시즌2가 방송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음식 맛에 대한 궁금증이 더해지며 영업 시작부터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강식당2’는 31일 첫 방송을 앞두고 4일부터 경북 경주시의 화랑교육원에서 촬영을 시작했다. 시즌1의 강호동, 이수근, 은지원, 안재현, 위너의 송민호는 물론 블랙비의 피오가 새로운 멤버로 합류해 촬영과营业을 겸하고 있다.

시즌1 이후 약 1년5개월 만의 개업으로, 첫날부터 ‘대박’이 터졌다. 오픈 소식이 알려진 뒤 손님이 대거 몰리자 제작진은 교통, 주차, 대기장소 등 각종 편의를 위해 5일부터 인터넷 추천

방식으로 손님을 모시고 있다. 응모자 가운데 인터넷을 통해 무작위 추천된 손님만 받고 있다. 6일 제작진에 따르면 이날 4만8150명, 5일에는 6만 598명이 신청했다.

이 같은 반응은 방송으로 드러난 강호동, 이수근, 은지원 등 출연자들의 호호뿐 아니라 음식 맛에서 나온다. 또 출연자들이 음식을 만드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다는 호기심에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방문자들 사이에서는 새 메뉴 ‘강북이’가 입소문을 타고 있다. 시즌1 제주도 편에서는 ‘강호동까스’ ‘오므라이스’ ‘제주많은 돼지라면’ 등이 높은 평가를 얻은 바 있다. 하지만 시즌2 경주 편은 시즌1의 촬영지 제주도보다 접근성이 좋아 프로그램 팬뿐 아니라 여행객들까지 몰리고 있어 화제의 열기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연예뉴스 HOT 5

연기자 박재민, 5일 결혼 깜짝 공개



박재민

연기자 박재민이 5일 결혼한 사실을 공개했다. 박재민은 6일 SNS에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동반자를 만나 삶의 새로운 막을 시작하려 한다”면서 5일 조용하고 소박한 예식을 올린 소식을 전했다. 서울대 체육교육과 출신인 박재민은 드라마 ‘공주의 남자’ ‘왕의 얼굴’ 등에 출연해왔다.

BTS, 美 LA 콘서트 이틀간 12만 관객



방탄소년단

그룹 방탄소년단이 5일(이하 한국시간)과 6일 미국 LA 로즈볼 스타디움에서 ‘러브 유어셀프:스피크 유어셀프’를 열고 총 12만 관객을 동원했다. 9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경기장이지만 안전상 이유로 회당 6만 명으로 제한했다. 이들은 15일 미국 ABC ‘굿모닝 아메리카’의 ‘서머 콘서트 시리즈’ 오픈링 공연과 유망 프로그램 등에도 출연한다.

영화 ‘악인전’ 할리우드서 리메이크



영화 ‘악인전’

마동석 주연 영화 ‘악인전’이 할리우드에서 리메이크된다. 제작사 비에이엔터테인먼트, 마동석이 이끄는 창작집단 팀 고릴라는 실베스터 스탤론이 이끄는 발보아피체츠와 ‘악인전’ 리메이크 제작에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악인전’은 연쇄살인마의 공격에 맞닥뜨린 조직 보스의 이야기다. 15일 개봉한다.

뉴이스트, 7월 방콕부터 해외 투어



뉴이스트

그룹 뉴이스트가 7월 해외 투어에 돌입한다. 뉴이스트는 7월20일과 21일 태국 방콕을 시작으로 해외 투어 ‘2019 뉴이스트 ‘Segno(세노)’를 이어간다. 7월27일 홍콩, 8월3일 자카르타 등 모두 6개 지역에서 팬들을 만난다. 이들은 최근 미니 6집 ‘Happily Ever After’(해피리 에버 애프터)의 타이틀곡 ‘BET BET’(벳벳)으로 활동 중이다.

“아역 데뷔” 5억 사기 친 기획사 검거

드라마나 광고에 출연시켜주겠다며 아역배우 부모에게서 거액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서울 방배경찰서는 방송출연을 미끼로 5억원을 뜯어낸 기획사 대표 A씨(48) 등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아역배우 부모들에게 등록비 300만원, 교습비 연 2400만원 등을 요구한 뒤 “연기수업을 받으면 드라마나 광고에 출연시켜 주겠다”고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편집 | 김형조·김대건 기자